

지역 건설업 회생 길 없다

⑥ 제도개선 서둘러라

대형공사 분할 발주 지역업체 참여 확대

최저낙찰제 줄여 출혈경쟁 없애야
4대강 사업 이후 SOC 투자 지속을

“최저가 확대 필수, 적격심사 개정
즉각 철회하라”
지난달 11일 광주시 동구 KT정보
통신센터에서 열린 예정이던 정부의
‘적격심사철폐 개편안 설명회’가
지역 건설업계의 보이콧으로 무산됐
다. 건설업계 “운찰제 해소를 가장해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려는 공수가
아니냐”며 “정부안대로 개정되면
덤핑입찰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지역경
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은 줄도산할 것”이라
고 주장했다.

에 반발하는 걸까? 정부가 구조조정
을 빌미로 오히려 건설 위기를 부추
기고 있다는 판단이다.
건설업계 위기는 경기침체의 장기
화에 따른 건설 물량 감소, 원자재가
격 급등과 출혈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이 원인이다.
“건설업계 위기는 경기침체의 장기
화”에 따른 건설 물량 감소, 원자재가
격 급등과 출혈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이 원인이다.
“건설업계 위기는 경기침체의 장기
화”에 따른 건설 물량 감소, 원자재가
격 급등과 출혈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이 원인이다.
“건설업계 위기는 경기침체의 장기
화”에 따른 건설 물량 감소, 원자재가
격 급등과 출혈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이 원인이다.

실제 지난 2010년 전남지역에서 진
행된 공사 규모(기성액)는 총 8조
6054억원으로, 이 중 전남 건설업체
가 시공한 공사액은 전체 물량의 33.
3%인 2조8656억원에 그쳤다. 나머
지 66.7%인 5조7398억원이 타 지역
건설사가 차지했다. 대부분은 수도권
대형업체들이었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물량이 없다
보니 출혈 경쟁을 해서라도 일감 확보
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공사비 절
감을 들어 의도적으로 최저가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 예산
10% 절감 추진에 맞춰 공사비까지
일괄적으로 10% 줄여 적정공사비에
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여기
에 원자재 가격마저 급등해 수익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업계는 공공 공사의 경우 적정 공사
비율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비가 부족하면 건축물의 품질 저
하와 부실시공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4대강 사업 이후 줄어든 SOC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늘려야 한다
고 강조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SOC 예산마저
감축한다면 경제 전반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SOC 투자를 확대해 국가경쟁력 제
고, 지역 균형 발전, 경제 활성화, 서
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선순환 구조
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만약
건설투자가 축소되면 하도급·자재·
장비업 등 건설 연관산업도 침체돼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일자리는 줄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투자 확
대는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
는 하나의 대안”이라며 “지역별로 적
정한 수준의 건설투자가 조기에 시행
돼 지역경제 침체의 장기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글>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여름철 식중독 잡아라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자 5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식품매장에서 품질평가사가
식중독 등 위생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식품을 점검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전경련 “하반기에도 경기회복 어렵다”
李대통령 “성장 위축...철저한 대비를”

경제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기가
올해 하반기에도 회복되기 어려울 것
으로 내다봤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5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경제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2012년 경제전망 세미나’를 개최했
다. 강태영 포스코경영연구소 소장은
고유가발 인플레이션 확대와 가계부
채 부담증가, 소비 위축 등 하반기 국
내 경제 3대 리스크로 인해 국내 경기
회복을 재한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
히 유로존 재정위기가 재부각 등으로
국내 경기 둔화세가 지속되는 소위
‘상저하저(上低下低)’ 유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상저하저는 경제가
상반기에 저성장하는 데 이어 하반기
에도 같은 흐름을 보인다는 의미다.
그는 민간소비가 3%대 늘어나는
데 그치고, 설비투자도 한자리수 증
가율에 머물렀다고 내다봤다. 특히
수출이 감소하지만 수입 감소폭이 더
커져 무역수지가 ‘불황형 흑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관련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경기 전망은 통상) ‘상저하고’라고
했는데 오히려 하반기 상황이 위축
될 가능성이 있으니 경제팀은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
했다.
/연합뉴스

대기업 계열사
한달새 9개 늘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1일 현재
63개 상호출자·재무보증제한 기업집
단의 소속 회사가 1천850개로 지난달
보다 9개 늘었다고 5일 밝혔다.
삼성, CJ, 한국전력공사 등 9개 기
업집단이 12개사를 계열사로 편입했
다. LG, 포스코 등 3개 기업집단은 3
개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했다.
계열편입 현황을 보면 삼성은 음식
점업을 영위하는 ㈜탑클라우드코프
레이션을 분할·설립하고 OLED 플
라스 제조업체인 유한회사 삼성코닝
어드밴스드글라스를 신규 설립, 전산
시스템 개발·관리업체인 ㈜누리솔루
션은 지분을 취득했다.
CJ는 합성수지제품 제조업체인 ㈜
원지와 파우치 포장기공업체 ㈜한원
의 지분을 취득해 계열화했다. 한전,
롯데, GS 등 7개 기업집단은 회사 설
립, 지분 편입으로 1개사씩 총 7개사
를 계열사로 집어넣었다.
/연합뉴스

광주에 LED 조명 실증센터

2400㎡ 규모 50종 실증장비 갖춰
실제 환경서 조명제품 성능 점검

세계 최초로 실제 도로환경에서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을 테스트하
는 실증센터가 광주에 들어섰다.
한국광기술원은 5일 광주시 북구
오룡동 첨단산업단지에서 LED 조명
실증센터 준공식을 하고 본격적인 운
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강운태 광주시장
과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
은희문 한국LED조명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실증센터는 지식경제부 LED 조명
실증 및 광·IT융합 지식정보 인프라
개발 사업의 하나로 준공했다.



한국광기술원은 5일 광주 첨단산업단지에서 강운태 광주시장과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 김선호 광기술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LED 조명 실증센터' 준공식을 했다. <광기술원 제공>

연면적 2400㎡ 2층 규모이며, 실내
조명을 비롯해 주거·감성·산업·운송
조명 테스트베드, 1200㎡에 달하는
실외조명 테스트베드 등 50여종의 실
증 장비를 갖췄다. 국비와 사비 등
150여억원이 투입됐다.
실제 환경에서 LED 조명기기 제품
의 질적 성능을 검증하는 곳은 국내
에서 이 곳이 유일하다. 특히 실제 환
경에서 도로조명 성능 검증이 가능한

‘도로조명 실증시설’은 세계 최초다.
광주시는 이 실증센터 건립으로
LED조명의 메카로서 위상 확보와 제
품의 신뢰성 확보, 경쟁력 향상에 도
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로등을 비롯한 기존 조명이 최근
LED조명으로 대체되고 있지만 제품
수명, 적합성 등에 대한 검증 부족으
로 대의 신인도 등 LED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돼왔다. 한국광기술원은

LED 조명 실증센터는 실내와 및 도로
조명 등에 적용되는 제품 성능을 실
제 환경에서 필드 테스트를 통해 제
품 신뢰성 및 질적 우수성 검증이 가
능해 공급자의 고품질 제품 유도와
수요자의 신뢰성 확보로 LED 조명 보
급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이와 별도로 청사 지하주
차장과 공광로 등 실제도로를 테스트
베드 공간으로 제공, 정확한 진단과

측정을 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선호 한국광기술원 원장은 “국내
최초로 구축된 LED 조명실증센터는
실증 지원을 위한 기술·연구인력·장
비·시설을 완벽히 갖추고 있다”며
“공공기관·지자체의 LED 조명 보급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광주 실증센
터를 점점으로 테스트베드 기반을 전
국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
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카카오 이번엔 무료통화 예고
‘보이스톡’ 시행 공지...통신업계 반발

카카오가 이동통신망을 이용
해 가입자간 무료 통화서비스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이
동통신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
섰다.
카카오는 지난 4일 무료 음성
통화(m-VoIP) 서비스인 ‘보이
스톡’을 위한 테스트를 모집한다
고 공지하면서 본격적인 m-
VoIP 시행을 예고했다.
무료 m-VoIP서비스는 ‘공파
통화’라는 측면에서 소비자들에

게는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막대
한 투자비를 들여 통신망을 구축
한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는 치
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소비
자들이 이동사의 음성통화를 이
용하지 않고 보이스톡으로 옮겨
갈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
레콤은 m-VoIP서비스가 IT산업
발전과 장기적인 이용자 편익을
저해하고 국익에도 도움이 안된
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Table with economic indicators: 코스피지수 1,801.85 (+18.72), 코스닥지수 456.68 (+5.84), 금리 (국고채 3년) 3.28% (+0.02), 원·달러 환율 1,180.10원 (-1.90)

Advertisement for 'Hansu' (한수) restaurant. Features a large logo, text about '대박나는 체인사업!!' (Big success chain business!!) and '부담없이 소자본으로 창업하세요' (Start a business with little investment). Includes a list of menu items like 돼지갈비 (pork ribs) and prices.

Advertisement for solar energy services. Title: '태양광, 태양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Solar power and solar heat are no longer choices, they are necessities!). Includes photos of solar panels on roofs and a table of pricing for different system sizes.